



명품 청자 '강진 富' 빛는다

군, 단국대와 함께 인프라 구축... 연간 300억 매출 기대

강진군이 연간 3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강진 청자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3일 "청자의 세계적 명품화를 위해 단국대와 함께 기술개발과 공동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진군과 단국대 도예연구소가 주축이 돼 추진되며, 2013년까지 국비 50억 원과 두 기관에서 18억 원 등 모두 6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한 뒤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최근 지식경제부에 의해 선정됐다.

강진군과 단국대는 1. 2단계로 나눠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개발과 제품 분석 평가를 위한 시험, 배색의 발전을 위한 장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자 명품화의 기반을

마련한 뒤 지역 도자업체에 기술이전과 장비대여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번 기반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단국대는 지난 2005년 관학 협력 차원에서 청자박물관 내에 강진도예연구소를 열었으며, 그동안 청자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토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왔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번 프로젝

트 수행으로 '청자의 고장'이라는 확고한 위상 정립과 강진청자의 명품화를 마련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이 청자 명품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강진청자문화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으며, 프랑스(2006), 일본(2007), 미국(2008) 청자 전시회에 이어 내년에는 유럽 9개국 10개 도시에서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허리띠 졸라매야 할 판에...

장흥군- 공무원 여비 등 일반 운영비 증액 편성 함평군- 축제 예산 과다지급 등 도 감사서 적발

전남도내 일부 시·군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은 내년도 일반 운영비를 두 자리수 증액해 불요불급한 경비의 10% 감축에 나서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보다 10.5% 늘어난 845억6천만원의 내년도 일반 운영비를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운영비는 공무원 여비를 포함해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기관 운영비 등 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장흥군은 2년 이상 인구 5만 명 미달로 2개과(재난관리과·마케팅과)와 정원을 감축해야 할 처지여서 일반 운영비 증액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 감산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분야 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분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유가 등을 감안해 부득이 일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

다"고 밝혔다.

함평군도 각종 지역축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2008년도 함평군 정기종합 감사 결과 100건을 적발해 이중 4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56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토록 조치했다.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 사업에서 잔디 식재와 환경보전비 등으로 5천여만원을 과다지급하고 엑스포공원의 도로침하를 방치해 3천만원의 하자보수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국회도서관 함평군에 책 2,500권 기증

국회도서관(관장 유종필)은 3일 함평군청에서 도서 2천500권을 함평군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책은 함평군의 신설 도서관인 나비곤충도서관과 나비골 작은도서관에서 열람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21일 함평군과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나비곤충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의 각종 행정 자료와 논문, 전문도서, 학술자료 등 전자정보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관장은 "책을 통해 사랑을 전파하고 책 읽는 문화,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소의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사랑의 책나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환경 보호하고 이웃 돕고
광산구 동곡동 농가주부회(회장 홍순희)가 지난 2일 400여 포기의 김장용 담가,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40세대에 전달했다. 동곡동 주부회는 지난달부터 마을 곳곳에 버려진 농약병과 폐 플라스틱 등 폐품을 수거해 모은 돈 150만원으로 김장 재료를 구입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rklee@

영광군 또 '특혜 시비' 산림사업 이어 범성향 공사도 의회,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영광군이 '산림사업 의혹'에 이어 '범성향 조성공사 특혜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최근 분회 의결을 열어 영광군이 추진 중인 범성향 매립 조성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범성향 매립 조성공사는 범성향 일대 25만7천여㎡를 매립해 11만8천여㎡를 분양, '골비타운'을 비롯해 상업 및 준주거 용도로 사용키로 하고 2003년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381억원을 들여 40개

월만에 마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은 잦은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어 공사 기간이 71개월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늘어났다고 지적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만 500억원 가량이며, 완공 예정일인 내년 6월21일까지 사업비 65억원과 분양수수료 44억원 등 109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현재 44%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분양률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을 고려하면 분양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토석채취장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설계가 지나치게 자주 변경돼 공사 지연을 부추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업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러다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완도군, 내년 '브랜드 가치 향상'의 해로

세계 슬로우 걸기대회 추진

완도군이 내년 군정운영 기조를 '건강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해'로 설정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 1일 열린 제173회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이미 다져진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건강 완도의 발전을 가시화하는데 군정을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

다"고 새해 군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완도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새해에산을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생산기반시설,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 저소득 계층 지원에 집중 편성했다.

군은 내년도에 여수권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을 비롯해 신지~고금 연도교 가설, 소안~노화간 연도교 조기착공, 전북 물류센터 및 수

출단지 조성,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 컨설팅으로 특산물 관측강화, 민간자본과 기업유치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정 안도개발공사의 설립추진, 권역별 특화 전략산업 육성, 경로당 순회진료 등 노인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문예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의 완도'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보길, 청산, 신지명사십리를 배경으로 '제 1회 세계 슬로우 걸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송지면 직원들 인심·정성에 반했어요"

서울 양지회, 2년간 4억원어치 쌀 팔아줘

작은 친절과 정성을 베풀 것이 계기가 돼 2년 동안 4억원어치의 쌀을 판매한 공무원들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해남군 송지면사무소 직원들.

송지면은 최근 서울에서 국가공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에 2억원 상당의 '한 눈에 반한 쌀' 5천500포대(10kg들이)를 판매했다.

양지회는 지난해에도 해남 쌀 5천500포대를 구입하는 등 송지면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지면이 양지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2년전부터다. 양지회는 '2006년 팥글 해남이·해맞이 축제' 때 추진위원장이던 김금복(63·팥글 비치모델 대표)씨의 주선으로 송지면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 후 송지면 직원



해남 쌀 5천500포대를 서울 양지회에 판매한 노성철(왼쪽에서 네번째) 송지면장과 직원들.
들은 양지회 회원들이 팥글을 방문할 때 안내를 자청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
특히 이들은 서울과 해남을 상호 방문하며 친분을 쌓았고 팥글의 인심과 맛에 반한 양지회 회원들이 연말 선물로 해남 쌀 구매를 결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노성철 송지면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남의 인심을 전국에 전파하고 농산물을 판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태양열 시스템으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태양열 시스템의 장점: 1. 난방 및 온수 비용 절감, 2. 환경 친화적, 3. 정부 보조금 지원, 4. 시스템 수명 연장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 1. 집열판, 2. 집열관, 3. 저장탱크, 4. 순환펌프, 5. 배관

태양열 시스템의 적용 분야: 1. 주택, 2. 상업 시설, 3. 공공 시설, 4. 산업 시설

태양열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1. 전문가 상담, 2. 현장 조사, 3. 설계, 4. 시공, 5. 유지보수

태양열 시스템의 문의처: Daejin Solar (주) 대진솔라

문의 전화: 1600-7480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전문업체

585-8888 '사람세상' 방문

가발의 장점: 1. 탈모 예방, 2. 헤어 관리 용이, 3. 다양한 스타일 가능, 4. 가격 합리적

가발의 종류: 1. 단발, 2. 중발, 3. 긴발, 4. 염색가발, 5. 미용가발

가발의 착용 방법: 1. 머리 세척, 2. 드라이, 3. 가발 착용, 4. 고정, 5. 마무리

가발의 유지보수: 1. 정기적인 세척, 2. 부드러운 세제 사용, 3. 자연 건조

가발의 문의처: 大山프리모닝네기발

문의 전화: 061-873-3333, 071-8112

문의처 주소: 011-887-8333